

천연염색 내의류 제품개발을 위한 디자인 선호 조사 연구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Investigation of Design Preference for Developing of Natural Dyeing Underwear -Focusing on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유경숙*

군산대학교 의류학과

You, Kyung Sook

Dept. Clothing & Textiles, Kun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offer useful information on natural dyeing underwear industry through an analysis of 20's purchasing behavior and design pre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From 600 questionnaires that were distributed, 512 with usable data were coded for further statistical analysis including descriptive statistics(frequency and chi-square test), by using SPSS 12.0 and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Given that a large number of 20's purchase men's underwear by their parents, and women's of their own. It was found that the underwear for men in their 20's should be developed in an attempt to place greater emphasis on improving functions as an outerwear.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design and marketing strategy specially tailored to 20's of natural dyeing underwear products.

Keywords : underwear, preference, natural dyeing

I. 서론

최근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의류제품의 고급화·전문화·다양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의류의 세계적인 캐주얼화 경향으로 기능성과 패션성을 모두 갖춘 의류를 선호하게 됨에 따라 니트웨어가 고부가가치의 패션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니트웨어 중에서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가장 장시간 착용하고, 보유수가 많으며 지속적인 구매를 하는 아이템은 내의류이다. 내의는 피

부와 직접 접촉하므로 외부로부터 오염을 막고, 피부를 보호하거나 보온효과를 위하여 입을왔다. 또한 내의는 착용시 활동에 불편을 주지 않고 겉옷의 실루엣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므로 위생적이며, 기능성이 우수하고 착용감이 좋아야 한다.

최근에는 내의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체형 보정의 기능, 원적외선을 방사하여 보온성 향상, 항균과 소취기능, 온도 조절 기능, 피부에 보습성을 부여한 내의 제품도 생산되고 있다. 촉감에 의해 유발되는 내의류 직물감성을 측정하기 위한 심리적 척도 개발 연구(손진훈 외, 1998)

† 이 논문은 2007년도 군산대학교 교수장기국외연수경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You, Kyung Sook

Tel: 063-469-4664, Fax: 063-469-1784

E-mail: ksyoun@kunsan.ac.kr

에서 ‘매끄러움’, ‘부드러움’, ‘섹시함’이 중요한 감각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여성은 내의 구매(김유화 외, 2001)행동의 특성에서 캐주얼하며, 클래식한 이미지보다 캐주얼하며 패셔너블한 이미지와 우아한 이미지의 상표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내의는 겉에 보이지 않으며, 피부와 접촉하므로 세탁횟수가 많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속성 때문에 다른 의복에 비하여 비 내구재에 속하며, 구입 과정에서도 시간과 노력을 비교적 적게 들이는 저 관여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이은영, 1999).

국내 내의류 시장은 내부적으로는 갈수록 소비자들의 내의류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외부적으로는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와 같은 후발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내의용 니트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은 사실상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은 ‘세계 천연섬유의 해’로 유엔이 정한 정도로 패션업계에 녹색 친환경 제품에 대하여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즉, 재배과정에서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면으로 만들어진 티셔츠와 속옷 및 인간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생활용품들을 친환경소재를 사용하는 에콜로지 패션(Ecology Fashion)으로 생태계를 배려하는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친환경소재의 사용도 중요하지만 화학염색으로 생산되는 의류제품은 섬유 염색 공정에서 사용되는 가공제와 화학염료 때문에 생기는 폐수처리에 의한 생활환경 오염과 그 제품 착용에 의한 피부자극으로 인하여 생기는 피부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천연염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남성우, 1998). 현재 천연염색은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전통염색의 지역 특화사업’으로 육성 등으로 문화상품으로 지정, 장려되어 제주도는 풋감을 이용한 갈옷, 전라남도는 쪽, 홍화 등의 천연염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천연염색제품은 널리 보급되고 있지 못하고 시장점유율도 1%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는데(홍나영 외, 2003), 이는 낮은 염료 수율을 보완하기 위해 매염색재료를 과다사용하거나, 식물성 염색재료는 채취한 즉시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상당기간 보관한 후에 사용하거나 저장방법이 올바르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추출된 색상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무분별하고 비도덕적인 상술로 합성염료를 함께 사용하여 시장에 출하하는 사례 등 소비자의 불신을 야기시키는 문제점도 있다(유영남, 노의경, 2005).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천연염색 의류제품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자연친화적이며 착용감이 좋으며 편안하고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염색건뢰도가 떨어져서 세탁 및 관리와 보관이 어렵다고 하였다(홍나영 외, 2003).

그러나 천연염색물을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색채의 재현성과 건뢰도의 향상도 중요하지만 제품의 색채에 대한 소비자 정보를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선호되는 색채를 선택한다면 천연염색물의 친환경적인 장점 이외에도 독특한 자연색채로 구매동기를 유발하여 천연염색물의 사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실용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상품기획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색채 기획이 천연염색을 이용한 상품제작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자외선 차단 효과(송명진, 송은영, 2005) 등 천연염색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활용도를 넓히기 위한 연구(주영주, 2006)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복에서의 색의 지각은 색이 지닌 기본적인 이미지와 지각하는 사람의 환경, 그리고 지각자의 특성에 지각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색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김재숙 외(2004)의 연구에 의하면 의복색의 선호색은 남녀 모두 무채색과 파란 계열의 색을 선호하였으며, 소유한 의복 역시 무채색 계열과 파란색 계열을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성이 입었을 때의 선호색은 무채색 계열과 빨간색 계열로 나타났다. 이처럼 피험자들은 전체적으로 무채색을 선호하고 있었으나 그 외의 선호색을 살펴보면 자신의 선호하는 의복색과 이성의 의복색에 대한 선호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일반색 선호도와 의복색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일반색 선호도는 주로 파랑 계열과 남보라 계열 등의 한색 계열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황계열과 노랑 계열 등의 난색 계열은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 의복색 선호도에서 무채색 계열과 갈색 계열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는 대체로 일반색 선호도의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나 의복이라는 특성에 의해 갈색계열이 선호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색에 대한 선호의 특징이 의복의 색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김미영, 2002). 황색계 천연염색 견직물의 색채이미지 연구(최연주 외, 2005)에서 황색계열 중에서 명도가 높고 녹색기미가 클수록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명량한 이미지의 황색계열을 선호하는 반면, 전원적이고 투박한 황색계열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색채이미지 요인 중에서 ‘명량성’, ‘편안성’, ‘현시성’ 요인이 클수록, ‘전

원성' 요인은 작을수록 선호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이처럼 색채는 소비자의 감성적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제품개발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감성적 욕구가 세분화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천연염색에 의한 색채 선호도 조사는 천연염색 제품을 상업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대 소비자들의 내의류 착용실태 및 남성 내의 디자인, 내의 구입시에 고려하는 사항의 정도 및 내의 품목별 천연염색재료의 선호도 조사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에 대한 연구로서, 천연염색 내의류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내용

1. 조사대상

본 조사는 군산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2008년 6월에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0대로서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중에서 응답한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성실하지 못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51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설문의 내용은 러닝셔츠의 착용빈도, 구매하는 주체, 남성용 러닝셔츠(소매, 네크라인, 문양) 및 팬티디자인의 선호, 내의 구입시에 고려하는 사항 그리고 내의 품목별 천연염색재료의 선호로 구성되었다.

디자인 선호도의 항목은 선행연구(최진희, 박현정, 2005)를 참고하여 그 모양을 그림으로 제시하였으며, 러닝셔츠의 착용빈도, 구매하는 사람, 내의 구입시에 고려하는 사항 그리고 내의 품목별 천연염색재료의 선호는 본 연구를 위하여 작성되었다. 내의 구매시에 고려하는 사항의 정도를 '아주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거의 아니다' '전혀 아니다'의 5점 척도로 1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의 점수가 높을수록 고려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모든 천연염색재료는 그 고유 색상을 가지고 있어서, 각 염색재료의 선호 및 색상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40수 니트(다이마루)에 각 천연염색재료로 본 연구를 위하여 11개의 천연염색 샘플을 만들었다. 각 샘플은 B4사이즈의 캔

트지 위에 각 5×5cm²의 크기로 위쪽만 고정하여 손으로 질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노랑황토 2.살구황토 3.붉은황토 4.주황황토 5.머드 6.쭉 7.화산재 8.열은숯 9.짚은숯 10.열은쪽 11.짚은쪽의 순으로 각 샘플의 아래에 번호와 색상 및 염색재료를 나타냈다.

3.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12.0 for Window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행되었으며, 분석기법으로는 기술통계량, 빈도분석, χ^2 -test 등이 사용되었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내의착용 빈도 및 구매 주체

내의 중 러닝셔츠의 착용빈도는 표 1과 같이 남자는 '거의 착용하지 않는다' 36.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가 30.1%, 여자는 '가끔 착용한다' 53.1%, '거의 착용하지 않는다' 21.5%, '항상 착용한다'도 17.7%로 나타나 남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남자보다는 여자의 러닝셔츠 착용빈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며 남자보다는 옷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신체분비물 흡수를 통한 겉옷의 오염방지 및 피부 위생을 위해서이며, 남자의 낮은 러닝셔츠의 착용률은 답답하고 겉옷의 맵시가 나빠져서 면 티셔츠를 대신하여 착용하기 때문(최진희, 박현정, 2005)으로 해석된다.

내의의 구매 주체로 남자는 부모 43.7%, 본인 41.9%의 순으로, 여자는 본인이 52.7%, 부모가 42.4%의 순서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또한 여자는 친구의 구매가 전혀 없었으나 남자는 3.9%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남자의 경우 아직 미혼으로 어머니 등이 구입해 주기 때문으로(최진희, 박현정, 2005), 여자는 남자보다 자신의 옷에 대한 관심이 높아 스스로 구입해서 착용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 남자 내의 디자인 선호

남성용 내의 디자인에 대한 남녀의 차이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러닝셔츠의 소매에서 남자는 '어깨 파임이 작은 민소매' 42.4%, '반소매' 30.6%의 순으로 선호

하였으며, 여자는 ‘어깨 파임이 큰 민소매’ 48.5%, ‘어깨 파임이 작은 민소매’ 36.4%의 순으로 나타나 남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는 20대 남자의 경우 러닝셔츠와 면 티셔츠를 혼용하여 남방 등의 겉옷과 함께 착용 하면서 밖으로 보이도록 착용하여 내의와 면 티셔츠를 혼용하는 것으로 보인 반면, 여자는 전통적인 남성용 내의 스타일에 대한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 이는 남성용 내의에 대한 관심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러닝셔츠의 네크라인에 대한 선호에서 남자는 ‘얇은 라운드형’에 대한 선호가 70.3%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여자도 ‘얇은 라운드형’에 대한 선호가 54.4%로 가장 높은 선호를 보였으나 ‘깊은 라운드형’에 대한 선호도 40.3%나 보여 전통적인 남성용 내의 스타일에 대한 선호도 높은 편으로 남자와 낮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러닝셔츠의 무늬에 대한 선호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남녀 모두 ‘무늬가 전혀 없는’ 것을 50% 이상이 원하였

〈표 1〉 성별에 따른 러닝셔츠 착용 빈도, 내의 구매 주체

% (명)

구분	성별	남	여	전체	χ^2 -value
러닝셔츠 착용 빈도	항상 착용	11.4 (26)	17.7 (50)	14.8 (76)	79.42**
	가끔 착용	22.3 (51)	53.1 (150)	89.2 (201)	
	거의 착용 안함	36.2 (83)	21.5 (61)	28.2 (144)	
	전혀 착용 안함	30.1 (69)	7.7 (22)	17.8 (91)	
	합계	100 (229)	100 (283)	100 (512)	
내의 구매 주체	본인	41.9 (96)	52.7 (149)	47.9 (245)	19.46*
	부모	43.7 (100)	42.4 (120)	43.0 (220)	
	다른 가족	1.3 (3)	0.7 (2)	1.0 (5)	
	친구	3.9 (9)	0 (0)	1.8 (9)	
	기타	9.2 (21)	4.2 (12)	6.3 (33)	
합계	100 (229)	100 (283)	100 (512)		

* $p < .01$, ** $p < .001$

〈표 2〉 성별에 따른 남성용 내의 디자인 선호

% (명)

구분	성별	남	여	전체	χ^2 -value
러닝셔츠 소매 디자인	어깨 파임이 큰 민소매	27.0 (62)	55.8 (158)	43.0 (220)	62.11**
	어깨 파임이 작은 민소매	42.4 (97)	36.4 (103)	39.0 (200)	
	반소매	30.6 (70)	7.8 (22)	18.0 (92)	
	합계	100 (229)	100 (283)	100 (512)	
러닝셔츠 네크라인	깊은 라운드형	22.7 (52)	40.3 (114)	32.4 (166)	17.85**
	얇은 라운드형	70.3 (161)	54.4 (154)	61.5 (315)	
	V자 형	7.0 (16)	5.3 (15)	6.1 (31)	
	합계	100 (229)	100 (283)	100 (512)	
러닝셔츠 무늬	무늬 전혀 없음	59.8 (137)	59.0 (167)	59.4 (304)	14.29*
	스트라이프	13.1 (30)	17.3 (49)	15.4 (79)	
	체크 무늬	5.2 (12)	4.9 (14)	5.1 (26)	
	잔잔한 무늬	12.2 (28)	16.3 (46)	14.5 (74)	
	기하학적 무늬	9.7 (22)	2.5 (7)	5.6 (29)	
	합계	100 (229)	100 (283)	100 (512)	
팬티 디자인	삼각 팬티	14.0 (32)	20.1 (57)	17.4 (89)	24.51**
	밑착 삼각 팬티	7.9 (18)	8.1 (23)	8.0 (41)	
	드로즈	26.1 (60)	9.9 (28)	17.2 (88)	
	트렁크	52.0 (119)	61.9 (175)	57.4 (294)	
	합계	100 (229)	100 (283)	100 (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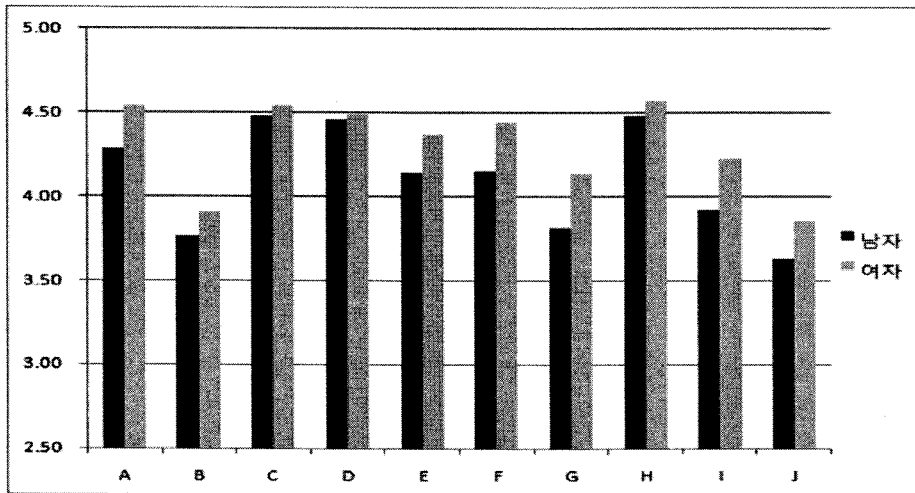
* $p < .01$, ** $p < .001$

으나, ‘스트라이프’와 ‘잔잔한 무늬’에 대한 선호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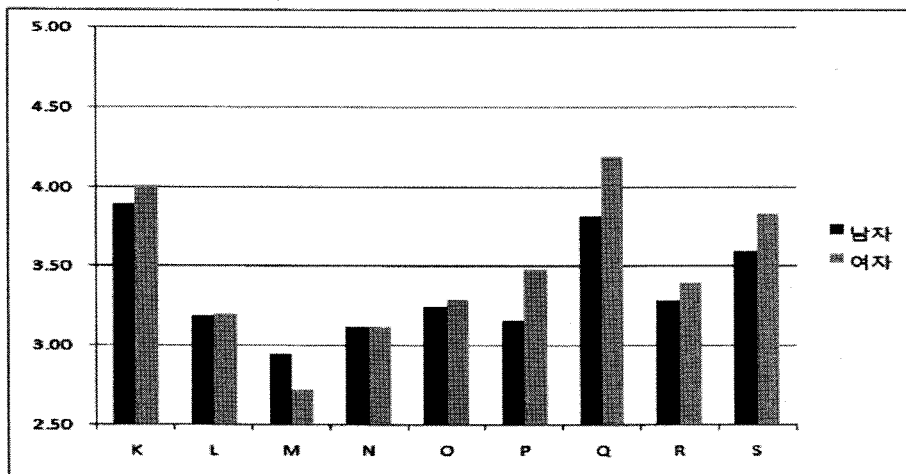
남성용 팬티 디자인의 선호에 있어서 남자는 ‘트렁크’ 52.0% 여자는 61.9%로 남자보다 약간 높은 선호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남자는 ‘드로즈’ 26.1%, 여자는 ‘삼각팬티’ 20.1% 및 ‘드로즈’ 9.9%로 나타나 남자에 비하여 여자의 ‘삼각팬티’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녀 모두 여유가 많아 착용시 편안한 팬티스타일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남자보다 여자가 편안함보다는 모양을 약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내의 구입 시에 고려하는 사항

성별에 따른 내의 구입시에 고려하는 사항에 대한 정도의 차이는 표 3과 같이 ‘피부에 닿은 감촉’은 남녀 모두 5점 척도에서 평균치가 각각 4.29와 4.54로 높게 나타났다으며, 남자보다 여자가 내의를 구입할 때 촉감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의류가 피부에 직접 닿는 의류로서 ‘매끄러움’, ‘부드러움’ 등의 촉감이 매우 중요한(손진훈 외, 1998) 항목으로 해석되며, 여자가 남자보다 피부뿐만이 아니라 감성적으로도 더 예민하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피부의 건강’, ‘착용감’, ‘활동성’은 모두 남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착용감’, ‘활동성’은 남녀 모두 평균치가 4.5에 근접하고 있어서 내의 구입시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으로 볼 수



[그림 1-1] 성별에 따른 내의 구입 시에 고려하는 사항의 정도



[그림 1-2] 성별에 따른 내의 구입 시에 고려하는 사항의 정도

〈표 3〉 성별에 따른 내의 구입 시에 고려하는 사항의 정도

내용	성별	남	여	χ^2 -value
A. 피부에 닿는 감촉		4.29	4.54	17.31**
B. 피부의 건강		3.77	3.91	2.66
C. 착용감		4.48	4.54	1.14
D. 활동성		4.46	4.49	0.53
E. 디자인		4.15	4.37	10.03*
F. 색상		4.15	4.45	19.75***
G. 가격		3.82	4.14	18.10***
H. 사이즈		4.48	4.57	2.82
I. 겉옷의 맵시		3.93	4.23	15.42**
J. 세탁의 편리함		3.63	3.86	10.32*
K. 입고 벗기 편함		3.89	4.01	8.39
L. 유행성		3.19	3.20	2.97
M. 섹시함		2.95	2.72	14.40**
N. 개성표현		3.12	3.12	3.75
O. 품위		3.25	3.29	8.68
P. 정숙성		3.16	3.49	24.60***
Q. 실용성		3.82	4.19	21.66***
R. 상표		3.28	3.40	6.57
S. 소재(섬유)의 구성		3.60	3.83	10.18*

* $p < .05$, ** $p < .01$, *** $p < .001$

있으나 ‘피부의 건강’은 평균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자가 20대로서 아직 젊기 때문에 피부의 건강보다는 내의를 착용했을 때의 느낌과 활동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디자인’과 ‘색상’은 남녀 모두 내의 구입 시에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가격’ 또한 남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는 평균치가 3.82로서 가격은 크게 고려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즈’는 남녀 모두 평균치가 4.5 정도를 보여서 자신의 몸 사이즈에 맞는 내의를 입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겉옷의 맵시’는 남자보다 여자가 높아 남녀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남성복에 있어서 내의가 겉옷의 맵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세탁의 편리함’에서 남녀 모두 낮은 평균치로서 내의 구매시에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내의류가 거의 면 소재이거나 잦은 세탁에 대한 전뢰도가 높은 소재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남자보다 여자가 세탁의 편리함을 더 고려하는 것은 여성용 내의가 남성용보다 더 다양한 소재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입고 벗기 편함’ ‘유행성’은 남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행성’은 남녀가 낮은 평균치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내의가 안에 입는 옷으로 겉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섹시함’은 내의류 구입시 고려하는 사항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20대로서 젊기 때문에 굳이 내의류에 섹시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지나, 내의류에 있어서 남자는 여자보다 섹시함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는 더 섹시함을 고려하는 것은 겉옷 밖으로 내의류가 노출이 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성표현’ ‘품위’ ‘상표’에서는 남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낮은 평균치를 보였다. 이는 안에 입기 때문에 겉에 드러나지 않아서 내의 구입 시에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숙성’과 ‘소재(섬유) 구성’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낮은 평균치를 보였다. ‘실용성’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숙성 및 소재의 구성보다는 평균치가 약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겉옷 안에 입기 때문에 정숙성 및 소재의 구성 등을 고려하지 않지만 실용적인 면에 대한 관심도 약간은 있으며, 남자보다는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옷에 대한 관심이 더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4. 내의류 품목에 대한 천연염색재료의 색상에 대한 선호

성별에 따른 여성용 및 남성용 러닝셔츠 및 팬티의 천연염색재료 색상 선호에 대한 차이는 표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용의 경우 남자는 살구황토 22.7%, 여자는 노랑황토 및 살구황토 25.4%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남자는 노랑황토 14.4%, 붉은황토 13.5%, 옅은쪽 13.1%의 순이었으며 여자는 붉은황토 11.7%, 옅은쪽 10.6%의 순으로 남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남녀의 선호도에 있어서 순서의 차이가 있으나 여성용 러닝셔츠 및 팬티의 천연염색 재료로서 밝고 옅은 색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용 러닝셔츠 및 팬티에 대한 선호에서 남자는 짙은쪽 26.2%, 짙은숯 21.8%, 여자는 옅은쪽 21.9%, 짙은쪽 15.9%, 짙은숯 15.2%의 순으로 남자는 짙고 어두운 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나 여자는 밝고 옅은 푸른색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티셔츠의 천연염색재료 색상에 대한 선호는 표 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 티셔츠용 염색재료에 대한 선호에 있어 남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노랑황토, 열은쪽, 살구황토, 주황황토 등 밝고 열은 색의 염색재료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이는 의복색의 선호에서 갈색계열의 선호가 높다는 김미영(200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남성 티셔츠용 염색재료의 선호에서 짙은 색의 쪽이 남자 23.1%, 여자 25.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남자는 열은 색 쪽 21.4%로 푸른색 계열의 선호가 높았으나

여자는 쪽, 짙은색 12.0%, 화산재 11.3% 등 다양한 선호를 보여 남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남자 대학생들은 파란색 계열을 선호하나 여자 대학생들은 무채색을 선호한다는 김재숙 외(200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겨울용 내의의 천연 염색재료 색 선호는 표 4-3과 같이 여성용에 내의에 대하여 남자는 살구황토 16.2%, 주황황토 15.3%, 노랑황토 13.1%, 열은 색 10.9%, 붉은황토 10.5%의 순으로, 여자는 열은 색 15.2%, 노랑황토 및 붉은황토 13.8%, 살구황토 13.1%로 고른 분포를 보여, 남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남성용 내의의 색에 있어 남자는 열은색과 짙은색 솜에 대한 선호가 19%대

〈표 4-2〉 티셔츠의 천연염색재료의 색상에 대한 선호

(%)

염색재료	성별	여성용			χ^2 -value	남성용			χ^2 -value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노랑황토		17.5 (40)	14.8 (42)	16.0 (82)	13.8	7.0 (16)	3.2 (9)	4.9 (25)	36.8**
살구황토		14.8 (34)	12.0 (34)	13.3 (68)		6.1 (14)	3.5 (10)	4.7 (24)	
붉은황토		7.9 (18)	11.3 (32)	9.8 (50)		4.8 (11)	6.0 (17)	5.5 (28)	
주황황토		14.0 (32)	13.1 (37)	13.5 (69)		6.6 (15)	3.5 (10)	4.9 (25)	
머드		7.4 (17)	6.7 (19)	7.0 (36)		6.1 (14)	6.7 (19)	6.4 (33)	
쪽		2.2 (5)	6.0 (17)	4.3 (22)		6.1 (14)	12.0 (34)	9.4 (48)	
화산재		4.3 (10)	4.6 (13)	4.5 (23)		4.3 (10)	11.3 (32)	8.2 (42)	
열은솜		1.7 (4)	2.5 (7)	2.1 (11)		3.5 (8)	6.4 (18)	5.1 (26)	
짙은솜		3.1 (7)	2.5 (7)	2.7 (14)		10.9 (25)	12.0 (34)	11.5 (59)	
열은쪽		16.6 (38)	11.7 (33)	13.9 (71)		21.4 (49)	9.9 (28)	15.0 (77)	
짙은쪽		10.5 (24)	14.8 (42)	12.9 (66)		23.1 (53)	25.4 (72)	24.4 (125)	
합계		100 (229)	100 (283)	100 (512)		100 (229)	100 (283)	100 (512)	

* $p < .01$, ** $p < .001$

〈표 4-1〉 러닝셔츠 및 팬티의 천연염색재료의 색상 대한 선호

(%)

염색재료	성별	여성용			χ^2 -value	남성용			χ^2 -value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노랑황토		14.4 (33)	25.4 (72)	20.5 (105)	37.3**	3.9 (9)	4.9 (14)	4.5 (23)	26.6*
살구황토		22.7 (52)	25.4 (72)	24.2 (124)		2.6 (6)	2.8 (8)	2.7 (14)	
붉은황토		13.5 (31)	11.7 (33)	12.5 (64)		3.5 (8)	3.2 (9)	3.3 (17)	
주황황토		9.2 (21)	4.9 (14)	6.8 (35)		6.6 (15)	2.8 (8)	4.5 (23)	
머드		7.0 (16)	5.7 (16)	6.3 (32)		6.6 (15)	9.9 (28)	8.4 (43)	
쪽		1.7 (4)	6.0 (17)	4.1 (21)		6.1 (14)	7.4 (21)	6.8 (35)	
화산재		3.5 (8)	3.2 (9)	3.3 (17)		3.0 (7)	6.3 (18)	4.9 (25)	
열은솜		0.9 (2)	2.1 (6)	1.6 (8)		7.0 (16)	9.5 (27)	8.4 (43)	
짙은솜		1.7 (4)	1.8 (5)	1.8 (9)		21.8 (50)	15.2 (43)	18.2 (93)	
열은쪽		13.1 (30)	10.6 (30)	11.7 (60)		12.7 (27)	21.9 (62)	17.8 (91)	
짙은쪽		12.2 (28)	3.2 (9)	7.2 (37)		26.2 (60)	15.9 (45)	20.5 (105)	
합계		100 (229)	100 (283)	100 (512)		100 (229)	100 (283)	100 (512)	

* $p < .01$, ** $p < .001$

〈표 4-3〉 겨울용 내의의 천연염색재료의 색상에 대한 선호

%(명)

염색재료	성별	여성용			χ^2 -value	남성용			χ^2 -value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노랑황토		13.1 (30)	13.8 (39)	13.5 (69)	20.5	6.1 (14)	5.3 (15)	5.7 (29)	40.1**
살구황토		16.2 (37)	13.1 (37)	14.5 (74)		7.4 (17)	1.8 (5)	4.3 (22)	
붉은황토		10.5 (24)	13.8 (39)	12.3 (63)		4.8 (11)	3.2 (9)	3.9 (20)	
주황황토		15.3 (35)	12.0 (34)	13.5 (69)		3.1 (7)	4.6 (13)	3.9 (20)	
머드		10.0 (23)	10.6 (30)	10.4 (53)		11.8 (27)	10.6 (30)	11.1 (57)	
쪽		4.4 (10)	6.4 (18)	5.5 (28)		6.6 (15)	6.7 (19)	6.6 (34)	
화산재		5.7 (13)	7.8 (22)	6.9 (35)		12.2 (28)	15.9 (45)	14.3 (73)	
열은 숯		10.9 (25)	15.2 (43)	13.3 (68)		19.7 (45)	37.1 (105)	29.3 (150)	
짙은 숯		7.4 (17)	4.9 (14)	6.1 (31)		19.2 (44)	11.0 (31)	14.6 (75)	
열은 쪽		4.4 (10)	0.7 (2)	2.3 (12)		5.7 (13)	1.8 (5)	3.5 (18)	
짙은 쪽		1.7 (4)	1.8 (5)	1.8 (9)		3.5 (8)	2.1 (6)	2.7 (14)	
합계		100 (229)	100 (283)	100 (512)		100 (229)	100 (283)	100 (512)	

* $p < .01$, ** $p < .001$

〈표 4-4〉 양말의 천연염색재료의 색상에 대한 선호

%(명)

염색재료	성별	여성용			χ^2 -value	남성용			χ^2 -value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노랑황토		23.1 (53)	30.0 (85)	27.0 (138)	18.9	8.3 (19)	9.9 (28)	9.2 (47)	35.5**
살구황토		12.2 (28)	14.1 (40)	13.3 (68)		4.4 (10)	3.9 (11)	4.1 (21)	
붉은황토		8.7 (20)	9.9 (28)	9.4 (48)		3.1 (7)	2.1 (6)	2.5 (13)	
주황황토		10.0 (23)	7.1 (20)	8.4 (43)		3.5 (8)	1.1 (3)	2.1 (11)	
머드		9.6 (22)	13.8 (39)	11.9 (61)		12.2 (28)	10.6 (30)	11.3 (58)	
쪽		3.9 (9)	2.1 (6)	2.9 (15)		5.7 (13)	9.2 (26)	7.6 (39)	
화산재		5.2 (12)	3.2 (9)	3.1 (21)		7.0 (16)	9.6 (27)	8.4 (43)	
열은 숯		2.6 (6)	1.8 (5)	2.1 (11)		6.6 (15)	8.5 (24)	7.6 (39)	
짙은 숯		5.7 (13)	3.9 (11)	4.7 (24)		24.0 (55)	35.3 (100)	30.3 (155)	
열은 쪽		15.7 (36)	10.6 (30)	12.9 (66)		11.8 (27)	6.0 (17)	8.6 (44)	
짙은 쪽		3.1 (7)	3.5 (10)	3.3 (17)		13.5 (31)	3.9 (11)	8.2 (42)	
합계		100 (229)	100 (283)	100 (512)		100 (229)	100 (283)	100 (512)	

* $p < .01$, ** $p < .001$

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화산재와 머드의 순으로 선호하였으나, 여자는 열은 숯 37.1%의 선호가 가장 높아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남녀 모두 무채색을 선호한다는 김재숙 외(200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양말의 천연염색 재료의 색에 대한 선호는 표 4-4와 같이 여성용 양말 염색재료에 대하여 남자는 노랑황토 23.1%, 열은 쪽 15.7%, 살구황토 12.2%의 순으로, 여자는 노랑황토 30%, 살구황토 14.1%, 머드 13.8%의 순으로 나타나 남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남성용으로는 짙은 숯을 남자가 24.0%, 여자는 35.3%로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남자는 짙은 쪽 13.5%, 머드 12.2%, 열은 쪽 11.8%의 순으로, 여자는 머드 10.6%의

선호가 높게 나타나 남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특히 남성용 양말에서 짙은 색의 숯에 대한 높은 선호는 바지의 색 및 짙은 신발과 매치시키기 편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군산지역의 대학생 512명을 대상으로 20대 소비자들의 내의류 착용실태 및 남성 내의 디자인, 내의 구입시에 고려하는 사항의 정도 및 내의 품목별 천연염색재료의 선호도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를 조사하여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러닝셔츠의 착용빈도에서 남자는 거의 착용하지 않거나 전혀 착용하지 않았으며, 여자는 가끔 착용하여 남자보다는 여자의 러닝셔츠 착용빈도가 높았다. 이는 남자는 티셔츠를 러닝셔츠 대신 착용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업체에서는 20대의 러닝셔츠의 낮은 착용에 대응할 수 있는 젊은이들의 패션 감각에 맞는 면 티셔츠와 같은 제품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의의 구매 주체로 남자는 부모, 본인의 순으로, 여자는 본인, 부모의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남자의 경우 아직 미혼으로 어머니 등이 구입해 주기 때문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자신의 옷에 대한 관심이 높아 스스로 구입해서 착용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따른 적절한 마케팅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남성용 내의 디자인에서 러닝셔츠의 네크라인에 대한 선호에서 남자는 ‘얇은 라운드형’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여자도 ‘얇은 라운드형’에 가장 높은 선호를 보였으나 ‘깊은 라운드형’에 대한 선호도 비교적 높아, 남자와 낮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는 20대 남자의 경우 러닝셔츠와 면 티셔츠를 혼용하여 남방 등의 겉옷과 함께 착용하면서 밖으로 보이도록 착용하여 내의와 면 티셔츠를 혼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자는 전통적인 남성용 내의 스타일에 대한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 이는 남성용 내의에 대한 관심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러닝셔츠의 무늬에 대한 선호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남녀 모두 ‘무늬가 전혀 없는’ 것을 가장 원하였으나, ‘스트라이프’와 ‘잔잔한 무늬’에 대한 선호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성용 팬티 디자인의 선호에 있어서 남녀 모두 ‘트렁크’에 높은 선호를 보였으나, 여자는 남자보다 약간 높은 선호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남자는 ‘드로즈’였으나 여자는 남자에 비하여 ‘삼각팬티’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녀 모두 여유가 많아 착용시 편안한 팬티스타일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남자보다 여자가 편안함보다는 모양을 약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성별에 따른 내의 구입시에 고려하는 사항에서 ‘피부에 닿은 감촉’은 남녀 모두 남자보다 여자가 내의를 구입할 때 촉감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의류가 피부에 직접 닿는 의류로서 ‘매끄러움’, ‘부드러움’ 등의 촉감이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해석된다. ‘피부의 건강’, ‘착용감’, ‘활동성’은 모두 남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착용감’, ‘활동성’은 남녀 모두 내의 구입 시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피부의 건강’은 평균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자가 20대로서 아직 젊기 때문에 피부의 건강보다는 내의를 착용했을 때의 느낌과 활동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착용감과 활동성이 고려된 제품개발이 필요하다. ‘사이즈’, ‘디자인’과 ‘색상’은 남녀 모두 내의 구입시에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격’, ‘겉옷의 맵시’, ‘세탁의 편리함’, ‘입고 벗기 편함’, ‘유행성’, ‘섹시함’은 내의류 구입시 고려하는 사항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치를 보여, 20대를 대상으로 한 내의류 제조에 정확한 사이즈 및 그들 취향의 디자인을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여성용 러닝셔츠 및 팬티의 천연염색 재료의 색에 대한 선호에서 남녀의 순서에 차이가 있으나 여성용 러닝셔츠 및 팬티의 천연염색 재료의 색으로서 밝고 옅은 색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용 러닝셔츠 및 팬티의 천연염색 재료에 대한 선호에서 남자는 짙고 어두운 색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나 여자는 밝고 옅은 푸른 색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티셔츠의 천연염색 재료의 색에 대한 선호에서 여성 티셔츠용 염색재료에 대한 선호에 있어 남녀 간에 차이는 없었으며 밝고 옅은 색의 염색재료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남성 티셔츠용 염색재료의 선호에서 짙은 색의 쪽이 남자와 여자 모두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남자는 옅은 색 쪽으로 푸른색 계열의 선호가 높았으나 여자는 쪽, 짙은숯, 화산재 등 다양한 선호를 보여 남녀 간에 차이를 보였다. 겨울용 내의의 천연염색재료에 대한 선호에서 여성용에 내의는 남자가 살구황토, 주황황토, 노랑황토, 옅은숯, 붉은황토의 순으로, 여자는 옅은숯, 노랑황토 및 붉은황토, 살구황토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양말의 천연염색 재료의 색에 대한 선호에서 여성용 양말 염색재료에 대하여 남자는 노랑황토, 옅은쪽, 살구황토의 순으로, 여자는 노랑황토, 살구황토, 머드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내의 품목 및 성별에 맞는 염색재료 및 색상을 세분화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소재, 기능 디자인을 개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용 내의의 디자인 선호에 대한 내용이 제외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설문문의 일부 내용은 저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조사되었으므로 확대해석에 제한이 필요하다.

또한 샘플로 사용된 천연염색재료의 선택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이 없이 조사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연령대 등 타겟을 세분화하여 천연염색재료에 따른 디자인을 개발하여야 한다.

주제어 : 내의, 선호도, 천연염색

참 고 문 헌

- 김미영. (2004). 일반 색, 의복 색 선호도와 의복 색 소유도의 차이. **한국의류학회지**, 28(7), 995-1006.
- 김유화, 권수애, 김은영. (2001). 20대 여성의 내의류 상표 선호도와 구매 시 평가기준. **한국의류학회지**, 25(7), p. 1203-1214.
- 김재숙, 이소라, 강현옥, 조은옥. (2004). 남녀 대학생의 의복 디자인 및 색 선호에 관한 연구 -남성 착용자를 중심으로-. **충남생활과학회지**, 17(1), 47-60.
- 남성우. (1998). 천연염료에 의한 염색. **섬유기술과 산업**, 2(2), 228-257.
- 손진훈, 박현영, 이임갑, 최상섭, 강대임. (1998). 내의 직물의 역학적 특성과 질감 감성과의 관계. **한국감성학회지**, 1(2), 35-42.
- 송명건, 송은영. (2005). 녹차 염색포의 자외선 차단 효과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9(6), 745-752.
- 유영남, 노의경. (2005). 델파이법을 이용한 천연염색에 관한 기초연구(제1보) -당면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9(6), 856-867.
- 이은영. (1999). **패션마케팅(제2판)**, 서울: 교문사.
- 주영주. (2006). 천연염료 염색포의 생활용품 활용에 관한 연구. **복식**, 56(3), 73-80.
- 최연주, 유효선, 권수애. (2005). 황색계 천연염색 견직물의 색채 이미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9(6), 868-876.
- 최진희, 박현정. (2005). 남성의 내의류 구매 실태 및 디자인 선호도 연구 -20~60대 남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3(6), 133-144.
- 홍나영, 유혜경, 이주현, 석혜정, 신혜성, 김찬주. (2003). 천연염색 의류에 대한 소비자 반응 및 소비자 특성. **복식문화연구**, 11(3), 404-415.

접 수 일 : 2009. 04. 18.

수정완료일 : 2009. 07. 07.

게재확정일 : 2009. 07. 07.